

“마음 맑을때 세상 절로 투명”

법정스님과의 만남

주제: 맑고 향기로운 삶

대담: 이계진 <방송인>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 모임 회주)과 이계진씨(방송인)가 지난 26일 불교방송에서 맑고 향기로운 삶에 대해 특별대담을 나눴다. 법정스님은 공종원씨(2월2일) 박광서교수(2월9일) 진명스님(2월16일)과 오전 11시20분~12시에 연속 대담을 갖는다. 본지는 이 대담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계진: 스님, 건강하시죠. 강원도는 몹시 춥지요.
▲법정: 평균 영하8도~20도를 오르내리죠. 더욱이 지대가 높고 개울가라서 굉장히 추워요. 그곳에서 4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절이 아니고 화정마을에 살다 비워둔 오두막인데 우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신 풀밭이 참 좋습니다. 지금껏 마셔본 풀밭중에 제일 좋은 듯 싶어요. 요즘은 얼어붙어서 얼음을 깨 물을 길입니다.



법정스님 이계진씨

나는 누구인가 자문할수록 삶 개선 현대문명의 해독제 자연밖에 없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산골 아니면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이계진: 예전에는 우리 전국토가 지금 계시는 곳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많은 곳이 오염되어 땅까지 버렸습니다. 지금은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안갔던 곳이 좋은 곳으로 돼 있습니다.
▲법정: 원래 맑고 향기롭다는 것 자체가 조용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운동을 일으킬 때에 용두사미격으로 바짝 올랐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제자신의 체질도 그렇고 여기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조용히 꾸준히 이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요.
▲이계진: 지역적으로 자부심을 만들고, 지역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도 모임을 활성화 해 나가는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법정: 지금까지 춘천,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 자부심을 해왔는데 올해는 전주, 광주, 대구, 원주 쪽으로 모임이 퍼져갈 것입니다.
▲이계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시고 시작한 것이 햇수만 3년이 되었는데, 세상을

스님 사시는 강원도 산골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동안 이 운동이 다른 캠페인들에 비해 좀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싫은데요.
▲법정: 원래 맑고 향기롭다는 것 자체가 조용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운동을 일으킬 때에 용두사미격으로 바짝 올랐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제자신의 체질도 그렇고 여기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조용히 꾸준히 이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요.
▲이계진: 지역적으로 자부심을 만들고, 지역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도 모임을 활성화 해 나가는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법정: 지금까지 춘천,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 자부심을 해왔는데 올해는 전주, 광주, 대구, 원주 쪽으로 모임이 퍼져갈 것입니다.
▲이계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시고 시작한 것이 햇수만 3년이 되었는데, 세상을

교방송하고 운동을 병행해서 하기 쉽고, 작년부터 소식을 받긴 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지향하는 3대 지표로 마음 맑게, 자연 맑게, 세상 맑게 세가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우선 마음부터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겠습니까?
▲법정: 자연이건 사람이건 세상이건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서 맑고 투명해지면 그 그림자인 세상도 맑고 투명해집니다. 세상의 온갖 사건 사고 비라든가 이런 것이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자체가 순화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맑고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도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존재에 대해 그때그때 나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나의 온전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자문하

고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쏠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지요.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맑히는 것은 올해 중점 과제로 많이 논의되어 할 사항입니다.
▲이계진: 스님, 강원도 산골에 계시니까 항상 느끼시겠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야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해야 배울 것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법정: 자연이건 사람이건 세상이건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서 맑고 투명해지면 그 그림자인 세상도 맑고 투명해집니다. 세상의 온갖 사건 사고 비라든가 이런 것이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자체가 순화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맑고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도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존재에 대해 그때그때 나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나의 온전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자문하

운동으로 펼치자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회주가 스님님께서 그런지 불교적인 운동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능한 종교를 떠나 범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법정: 원래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우리는 세상을 함께 가꾸어 가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도 불자를 비롯해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등 다양합니다. 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제가 승단에 몸을 담고 있어 꼭 불자만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전혀 종교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더욱 성숙된 시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회원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시론 인기위주 새 판짜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전직 모 야당 중진은 요즘의 정치를 무슨 미인선 발매회나 노래자랑을 보는 기분이라고 고쳐서 토로한 적이 있다.
지금의 우리 정치에서는 전문가나 엘리트계층의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이른바 여론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 어쨌든 아마추어 수준의 여론이 국정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이 말은 정치가 대중의 박수소리나, 아니면 비난의 소리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칫 중우정치로 함몰할 위기에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간 국회나 정당들의 활동이 말없는 다수의 국민보다는 할말은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대중요법을 찾기에만 부심해온 모습을 보면 참으로 공감이 간다.

박찬종씨와 이회창씨가 엇그제 신한국당에 들어갔다. 신한국에선 무슨 개선장군을 맞는 것처럼 열렬히 모시고, 야 3당에서는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지역보탈구도가 또다시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박씨와 이씨의 영입은 집권 여당의 수도권 전략차원으로 이해되어서 그런지, 야당들의 공격은 배신감, 허탈감으로 요약된다.
국정보다 총선에만...
그러나 정작 허탈한 것은 국민들이다. 정당이란 사람들의 모임체다. 그것도 이념과 성향을 같이 하고 경력과 지식, 전문성 등이 조화롭게 융화되면 그런 모임체를 뜻한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당들은 어떤가.



송재운 <동국대학교수·국민윤리학>

여당인 신한국은 유신과 5·6공 핵심 세력, 구 여권 정부 인사, 제도야권, 재야 및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계급정당의 출발로서 '민중당'을 주도하기도 했던 이도 있었다. 색깔을 따지면 4세 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야당들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특히 집권여당에 대해서 불만, 회의, 허탈한 심정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나라를 책임진 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 때문이다.

YS는 '충의 정치인'으로 이름 나 있다. 여론과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는 정치적 직감력이 뛰어 나는 말이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에 곧잘 영합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YS의 정치적 체질이 그가 대통령이 되고서도 여전히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면, 국정의 중요사안들이 치밀한 계획이나 논리적 타당성의 검증은 거치지 못하고, 감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남북한 관계의 잦은 정책선회, 하루 아침에 튀어나온 역사바로잡기 등 수많은 '깜짝 쇼'들이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감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노래자랑을 보는 기분
현행 헌법하에서 김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 말은 국민대중의 인기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대중의 속성은 폭력적이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러한 여론만을 좇아 인기를 누리려 한다면 훗날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노래자랑을 보는 기분'이란 정치가, 그것도 집권여당의 정치가 인기에만 매달리는 중우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김영삼대통령은 이제부터 인기없는 대통령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국민 화합과 국가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요새 정당들의 인기전술은 4.11 총선을 앞두고 한층 더 거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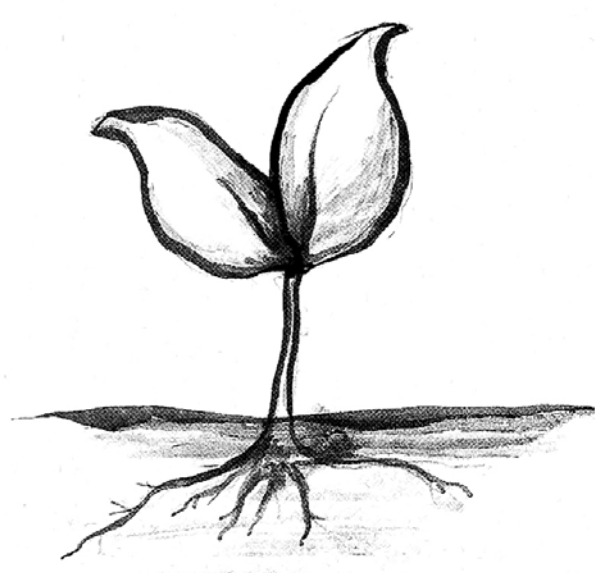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제 1공화국과 제 3공화국, 그리고 유신시대는 분명 독재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집권자들은 분명한 국가이념과 국가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집권정당이 이념명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라 할만큼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수긍을 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국가 발전에 대한 원대한 목표의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개혁, 개혁 하지만 그것은 과거 때려잡는 것로만 느껴질 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4.11총선은 얼마남지 않았다. 정당들, 특히 여당이 선거전략을 대중적 인기도나 지명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세워주길 바란다.
感과 人治 위주의 인기영합으로 대도무문의 경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불교 (59)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바보들의 행진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 하나는 독립 생명체로 기능하면서 다른 세포들과 정보를 주고 받거나 물질을 나누어 갖는다고 한다. 이른바 세포의 신진대사 기능은 또 수천 가지의 화학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런 화학반응을 통해 각 세포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세포마다 수명이 일정치 않아서 우리 몸 속에서는 끊임없이 죽어 가는 세포와 새 세포의 자리바꿈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
현대과학이 그 요묘한 작용의 전모를 아직은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약 60조 개의 세포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찰나찰나에 나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 찰나의 나뉘기가 없다면 우리 육신은 화석이나 다름 없을 것이고, 그런 나뉘기가 한 순간 멈춘다면 육신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란 찰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 세포들 60조 개의 결합이면서, 그 결합 또한 잠시도 머물지 않는 그러한 상태나 다름 아니게 된다. 마치 인구 50억의 지구에 비유할 그런 모습인 것이다. 고로 '내 몸'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해야 맞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의 상태를 꼬집어 '나', '내 몸'이라고 해야 옳겠는가.
몸 속에서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화학반응들, 60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독립체이면서 가지런히 질서를 유지하는 현상들, 세포와 세포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서로 간에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정보를 교환하는 현상들, 그런 현상의 주체자는 과연 누구일까.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등이 그런 현상을 조절하고 있는가. 분명 아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무엇보다도 병고에 시달려야 할 까닭이 없다. 더구나



나 조절은커녕 몸 속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제 몸에 관해서라면 까막눈이요 귀머거리이다. 세상물정에 대해 내노라 뽐내는 사람도 제 몸에 관한 한은 청맹과니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보인 셈이다.
그렇다면 주체자는 누구인가. 각각의 세포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의식·생각은 무엇이며 주체자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되지 않는가.
육신에는 한 순간도 고정된 모습이 없고 나의 의식·의지로는 육신을 주재하기는커녕 그 요묘한 작용의 이치조차 모르고 있다면 과연 내가 '나'라고 고집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집안살림의 내용을 모르는 그 '나'를 주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는가.
부 처남께서는 제법무아-모든 현상

에 '나'라고 정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겠다. 찰나도 고정됨이 없으니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다만 '나'라고 고집하는 생각-가짜의 나, 가짜의 내가 있을 뿐이라고 하겠다.
가짜를 참으로 알고, 가아(假我)·가화합의 나를 참나로 알아 그것을 중심삼아 살아가는 안 된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왜 가아라 했는지를 참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상계의 이 '나'를 형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요묘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건성이다.
세화당 한학 도매상 (각종 한약제 도산대)
대표 정갑봉
전화: 광주 225-3355~7
팩스: 광주 225-5678
부 처남께서는 제법무아-모든 현상